

경작유적을 통해 본 청동기시대의 생산과 소비

— 남강유역의 경작유적을 중심으로 —

윤 호 필
경남발전연구원

〈목 차〉

- | | |
|---|---|
| I. 머리말
II.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양상
1. 남강유역 취락현황
2. 취락구조 검토 | III.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곡물 생산과 소비
1. 출토곡물의 종류와 특징
2. 경작유구의 특징
3. 곡물의 생산과 소비
IV. 맺음말 |
|---|---|

I. 머리말

최근 청동기시대 연구가 다양해지고 세분화되어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청동기시대 사회를 살펴볼 수 있게 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포괄적인 연구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이중 청동기시대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는 다른 연구들에 비해 미진한 편으로 수공업품 및 생산유구를 중심으로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청동기학회의 학술대회 주제인 “청동기시대 생산과 소비적 관점에서 바라 본 경제활동”은 다양한 주제를 통해 청동기시대 사회를 보다 새로운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리라 생각된다.

본고는 청동기시대의 다양한 생산활동 및 소비활동 중에서 경작유적을 중심으로 ‘곡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통해 청동기시대의 경제활동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동기시대 곡물의 생산-유통-소비는 당시의 사회적 기반으로 볼 때 한반도 전체가 대상이기 보다는 지역적 소단위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도 일정범위의 지역군을 선정하여 소지역 단위로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지역은 경작유구의 조사사례가 많고 수계를 중심으로 일정 범위에 많은 취락이 분포하는 남강유역을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시기는 청동기시대를 3시기로 구분할 때 전기와 후기에는 일부 곡물만 확인될 뿐 경

작유구의 출토예가 매우 적어 시기별 변천을 파악하기는 어렵다.¹⁾ 따라서 청동기시대 중기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아직 청동기시대 곡물에 대한 자료가 많이 부족하고, 곡물의 구체적인 재배형태나 생산량 등의 연구도 미진하여, 곡물종류에 따른 세부적인 양상을 논하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작지(논과 밭)의 종류에 따라 곡물을 크게 도작물(稻作物)과 전작물(田作物)으로 구분하고,²⁾ 재배형태나 생산량은 경작유구 및 취락의 규모와 구조를 통해 대략적으로 추정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남강유역 취락현황을 파악하여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분하고 여기에 경작취락을 중심으로 곡물의 생산-유통-소비 시스템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II.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양상

1. 남강유역 취락현황

- 남강유역은 경호강-남강-덕천강으로 연결되는 하천과 인접한 지역을 말한다.
- 유적의 분포 및 입지는 대부분 수계를 따라 분포하는데, 주로 하천변 충적지(A), 단구면(평지)(B), 하천에 인접한 구릉사면(C)에 입지한다.
- 현재 남강유역에서 발굴조사된 유적은 대략 43개 유적으로 그 현황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취락의 세부속성은 크게 생활유구, 저장유구, 의례유구, 무덤유구, 경작유구의 5개 속성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유구양상을 정리하였다. 이중 경작유구는 유구의 특성상 잔존하는 범위 및 지형을 고려하여 대략적인 추정면적을 산정하였다.³⁾
- 청동기시대의 기본적인 취락구조 분류안은 이형원(2009:118-144)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으며, 본고에서도 이를 참조하여 취락의 구성요소를 크게 ①생활유구, ②저장유구, ③의례유구, ④무덤유구, ⑤경작유구의 5개로 설정하여 취락유형을 정리하였다.⁴⁾

1) 토기를 중심으로 3시기를 설정하며, 전기(돌대문토기, 가락동계토기, 역삼동계토기, 혼암리계토기), 중기(송국리계토기, 검단리계토기), 후기(점토대토기)로 구분된다.

2) 잡곡은 넓은 의미로 쌀 이외의 곡물과 두류 및 울무 등 말하며, 지금까지 시료를 통해 확인된 청동기시대 곡물은 쌀, 조, 기장, 보리, 밀, 콩, 팥 등이 있다.

3) 경작지 중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보고서가 미간인 경우는 존재여부만 기재하였다.

4) 의례유구는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것도 있지만, 무덤군이 조성된 경우나, 거대한 분묘가 독립적으로 축조된 경우는 무덤자체가 하나의 의례적 기능을 겸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취락내에서 주거지와 인접해서 이런 무덤들이 분포할 경우는 의례유구를 겸하는 것으로 보고 ‘有’로 표기하였다.

〈표 1〉 남강유역 취락현황

연번	유적명	입지	생활유구												저장유구		의례유구	무덤유구	경작유구		취락유형
			주거지	야외노지	구	대상유구	주혈	함정	수혈	집석	적석	폐기장	토기군	환호	굴립주	저장혈			논(m ²)	밭(m ²)	
1	산청 하촌리 (경문연)	A	13		2			6	6						1			1			①②③
2	산청 하촌리 (경발연)	A	21		1		126		102						4			3			①②③
3	산청 매촌리	A	18						6								2기	49			①③④
4	산청 옥산리	B	117						18					2열	5						①②
5	산청 묵곡리	A	5	1											9		1개소				①②③
6	산청 사월리 새터	C	19		2				11					1열			有	9			①③④
7	산청 사월리 배양	C	10						10					2열				2			①④
8	산청 대하리	A	2																		①
9	산청 명동	B																2			④
10	산청 강루리	B	8						10									3			①④
11	산청 단성면 묵곡리	A																	2,600		⑤
12	진주 안간리	C	9						20												①
13	산청 소남리	A	27															1			①④
14	진주 대평리	어은1	A	120	38				27	25							有	23		13,200	①③④⑤
15		어은2	A	50	33				32	42								8		밭	①④⑤
16		옥방1	A	74	35	112		3개소	361	3		4		4	5		有	37		150	①②③④⑤
17		옥방2·3	A	30		12			80	7								31		13,300 (1+2차)	①④⑤
18		옥방4	A	66	22	7			76							5		5		1,100	①②④⑤
19		옥방5	A	64	13				9		1						有	9		500	①②③④⑤
20		옥방6	A																	3,700	⑤
21		옥방7	A	21		10			90					3열				5			①④
22		옥방8	A	13	16				125	10							有	21		5,000	①③④⑤
23		옥방9	A	13		1			33											400	①⑤
24	진주 상촌리	A	A	1																	①
25		B	A	2																	①
26		C	A	3					3		1										①
27		D	A	1																	①
28		E	A	48		1			20								有	57			①③④

연 번	유적명		입지	생활유구												저장 유구		의 례 유구	무 덤 유구	경작유구		취락 유형	
				주거지	야외 노지	구	대상 유구	주혈	함정	수혈	집석	적석	폐기장	토기군	환호	굴립주	저장혈			논(m²)	밭(m²)		
29	진주 귀곡동	A	A															2			①④		
30		대촌	A	12					1								有	12			①③④		
31	내촌리	B	A	1																	①		
32	사천 본촌리		A	17		1												3			①④		
33	진주 평거동	3-1	A	35		15		군	59	91						2		3 개 소	7	1층-가 2,177 1층-나 2,025 2층 1,210	28,140	①②③ ④⑤	
34		3-2-1	A	15			23	6군	16	281						7		有	30		2,900	①②③ ④⑤	
35		3-2-2	A																		4,300	⑤	
36		4-1	A	5		2			25	3									3	1층 3,217.8 2층 483.7	24,222	①④⑤	
37		4-2	A	19		22			24	101												16,713.4	①⑤
38		4-3	A																			6,498.1	⑤
39	진주 가호동		B	26	9				19	26					1	4		有	39		800	①②③ ④⑤	
40	진주 호탄동		C	1		12		2		10	3											①	
41	진주 초전동 (한국분물)		A	57			78		12	155					1	12		有	10			①②③ ④	
42	진주 초장동 (동서분물)		A	52		39				132	1					25		有	21	논		①②③ ④⑤	
43	진주 이곡리		A	8						32					2			有	40	논		①③ ④⑤	



도면 1. 남강유역 취락 분포도

* 범례

번호	유적명	번호	유적명
1	산청 하촌리(경문언), 산청 하촌리(경발언)유적	10	진주 대평리유적
2	산청 매촌리유적	11	진주 상촌리유적
3	산청 옥산리유적	12	진주 귀곡동 대촌유적
4	산청 목곡리유적	13	사천 본촌리유적
5	산청 명동유적	14	진주 평거동유적
6	산청 강루리유적	15	진주 가호동유적
7	산청 사월리 새터유적, 산청 사월리 배양유적	16	진주 호단동유적
8	산청 단성면 목곡리유적	17	진주 초장동유적, 진주 초전동유적
9	산청 소남리유적	18	진주 이곡리유적

2. 취락구조 검토

- 취락은 주거지가 중심이 된 가옥집합체로 보는 협의적인 개념보다는 인간의 주거생활과 관련된 모든 유구들(경작지, 도로망, 행위공간, 패총(폐기장), 분묘, 요지, 사회공공건물지, 제사(의례)장소 등)을 포함한 광의적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 취락공간은 인간의 모든 일생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다양한 성격의 공간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존한다. 이를 세부속성에 따라 구분하면 생활공간, 저장공간, 의례공간, 무덤공간, 생산공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취락의 개념 및 공간구분에 대한 것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검토되어진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취락구조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남강유역 취락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남강유역 취락연구는 고민정(2004, 2010), 배덕환(2009), 최섯별(2013) 등의 연구가 있으며, 대부분 취락구조 분석을 통해 취락유형을 설정하고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 고민정(2010:26)은 이형원의 취락구조 분류안을 토대로 남강유역 후기 취락구조를 검토하고, 이를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에 대입하여 남강유역 취락의 성격을 <표 2>, <표 3>과 같이 파악하였다.

표 2. 남강유역 취락구조 분류(고민정 2010:26 재인용)

취락구조	규모	유 적	비 고
주거+분묘공간	小	귀곡동 대촌, 사천 본촌리	
	中	상촌리 E지구	
주거+분묘+생산공간	中	가호동취락, 초전동취락	수공업생산, 경작지(밭)
주거+분묘+의례공간	小	사월리취락	
주거+분묘+의례+생산공간	中	평거3지구취락, 이곡리취락	수공업생산, 경작지(논,밭)
	大	대평리취락	수공업생산, 경작지(밭)

표 4. 남강유역 취락의 규모와 성격(고민정 2010:32 재인용)

취락규모	유적	취락성격
중심취락	진주 대평리취락	복합형
중위취락	산청 소남리, 진주 상촌리, 진주 가호동(제사집단?), 진주 초전동 취락	복합형
	진주 이곡리, 산청 사월리, 산청 묵곡리 취락	제사집단
	경작집단 - 진주 평거동(복합형?)	경작집단
소취락	귀곡동 대촌유적, 사천 본촌리유적	

- 김삿별(2013:50)도 남강유역의 취락분포를 4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각 취락의 규모와 구성요소들을 검토하여 <표 4>와 같이 취락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표 5. 남강유역 취락 권역별 구성(김삿별 2013:50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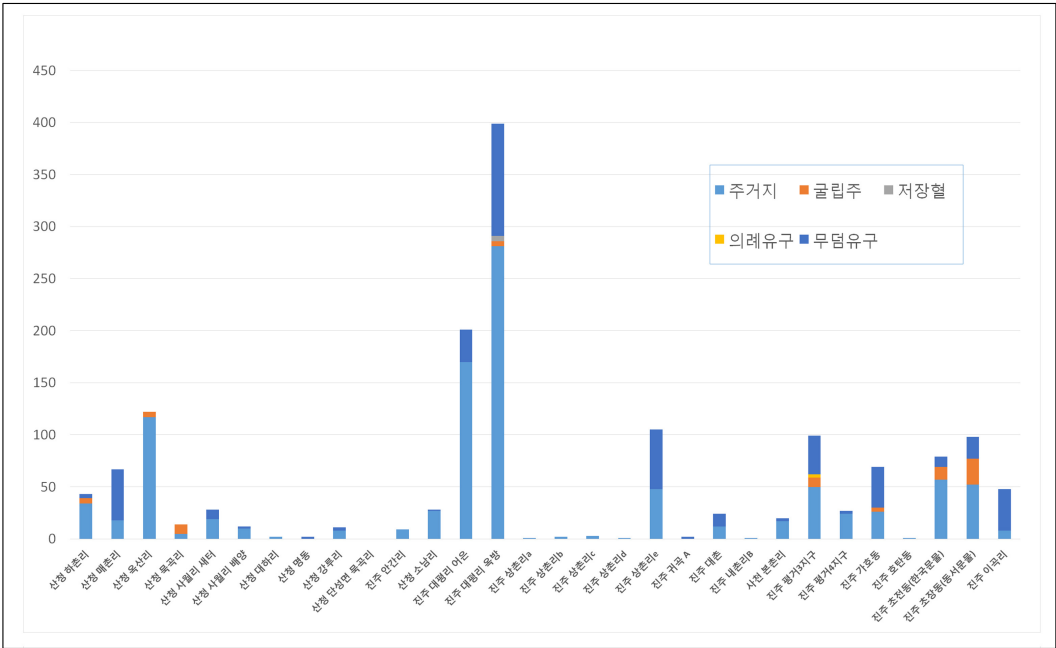
취락형태	A권역	B권역	C권역	D권역
중심취락	산청 하촌리		진주 대평리	진주 초전동
복합취락			진주 상촌리	진주 평거동, 진주 가호동
장의형취락	산청 매촌리			이곡리
일반형취락	산청 목곡리	의령 마쌍리	산청 사월리, 대촌	
구릉형취락		산청 안간리		

- 고민정과 김삿별의 연구는 모두 취락의 규모와 취락 구성요소를 분석하여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을 설정한 다음 각 취락의 성격을 파악하였다. 남강유역의 최상위 중심취락에 대해서는 모두 ‘진주 대평리유적’을 설정하고 있어 이견이 없지만, 나머지 주변취락의 성격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이는 각 취락의 구성요소에 대한 관점과 해석의 차이로 생각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서로 비슷한 연구성곽을 보이고 있다.
- 두 연구에서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남강유역에 분포하는 취락들은 최상위의 중심취락을 중심으로 주변에 다양한 성격의 취락들이 상호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취락은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취락으로 보았다. 따라서 남강유역의 취락은 일정한 네트워크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 앞의 두 연구성곽을 참고하여 취락의 구성요소들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한 것이 <표 1>, <표 6>, <도면 2>이다. <표 1>은 입지 및 취락의 구성요소들을 취락별로 세분하여 정리하고, 이를 취락유형으로 다시 설정하였으며, <표 6>은 취락의 구성요소 별로 유적을 재정리한 것이다. <도면 1>은 취락의 구성요소 중 경작유구를 제외한 각 속성의 수량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취락의 규모뿐만 아니라 취락 구성요소의 복잡성을 잘 보여주며, 이를 통해 취락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 전체적으로 보면 남강유역의 취락은 다양한 취락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하며, 취락의 규모에 따라 대형취락, 중형취락, 소형취락으로 나누어진다. 이는 다시 취락의 성격에 따라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분된다.

표 5. 남강유역 취락의 구성요소

취락 구성요소	유적명	취락성격	
①	산청 대하리, 진주 안간리, 진주 상촌리 A~D, 진주 내촌리 B, 진주 호탄동	소규모 주거지중심	주 변 취 락
④	산청 명동	무덤중심	
⑤	산청 단성면 목곡리	경작지중심	
①+②	산청 옥산리(대형취락)	주거지중심	
①+④	산청 사월리 배양, 산청 강루리, 산청 소남리, 진주 귀곡동 A, 사천 본촌리,	소규모 복합	
①+②+③	산청 하촌리(중형취락),	주거지중심	
	산청 목곡리	의례중심	
①+②+④	산청 매촌리	무덤중심	
①+③+④	산청 사월리 새터, 진주 귀곡동 대촌	소규모 복합	
	진주 상촌리E(중형취락)	무덤중심	
①+③+④+⑤	진주 이곡리	무덤중심	중심 취락
①+②+③+④+⑤	진주 대평리유적(어은지구·옥방지구)(대형취락), 진주 평거동유적(3·4지구)(대형취락), 진주 초장동유적+초전동유적(대형취락)	대규모 복합	
	진주 가호동(중형취락)	무덤중심	

* 범례 : ①생활유구+②저장유구+③의례유구+④무덤유구+⑤경작유구



도면 2. 남강유역 취락의 구성요소 분석표

Ⅲ.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곡물 생산과 소비

1. 출토곡물의 종류와 특징

- 남강유역 취락에서 출토된 곡물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나 일부 유적에 한정되어 있어 남강유역 전체의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출토곡물의 대부분이 대규모 복합유적에서 확인되어 대략적인 양상은 파악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곡물은 인간이 식용(食用)할 목적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식물을 말하며, 남강유역 취락에서 출토된 곡물 종류는 약 9종이다. 대부분은 주거지, 경작지, 수혈 등에서 출토되었다.

표 7. 남강유역 출토 식물유체 집성표(안승모 2013b 수정보완)

유적명		곡물	도작물 (稻作物)	전작물(田作物)									비고	
				맥류			잡곡			두류		채소류		
				쌀	맥류	보리	밀	조	피	기장	두류	콩		팥
산청 강루리			○				○							
진주 대평리	어은1		○	○	○	○			○	○	○	○	○	
	옥방1		○			○	○		○	○		○	○	
	옥방2·3		○				○							
	옥방4		○			○		○	○			○		
	옥방5		○											
	옥방6			○			○			○				
	옥방9					○	○					○	○	
진주 상촌리	E		○	○	○	○	○		○		○			
진주 평거동	3-1		○			○			○		○	○		
	3-2-1				○									
	3-2-2					○	○							
	4-1		○		○	○	○		○	○	○	○	○	
	4-2					○	○							조 다량 확인

- 〈표 7〉은 남강유역에서 출토된 곡물의 종류를 정리한 것이다. 크게 도작물과 전작물로 나누어지며, 다시 전작물은 맥류(보리, 밀), 잡곡(조, 피, 기장), 두류(콩, 팥), 채소류(들깨)로 구분된다. 이중 들깨를 제외하면 모두 식량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작물이다.
- 곡물의 생산은 출토곡물의 성격을 통해 경작지의 재배여건,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 작부체계(作付體系) 등을 파악하여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출토곡물의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 그리고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곡물의 파종시기 및 수확시기

곡물 종류		파종시기	수확시기	특 징	문화적 의미(상징)와 기능
쌀(벼)		5월	9월	- 재배에 물이 많이 필요하고, 토양조건이 까다로움 - 발작물에 비해 재배과정에서 노동력이 많이 필요함	- 흰색의 의미 - 귀한 음식 - 제사용 곡물 - 위신제 기능 - 조세용 곡물
맥류	보리	10월	6월	-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한 기상에 잘 적응하며 토양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어느 지역에서나 잘 자람. - 맥류중에서 수확기가 가장 빨라 다른 작물과 이모작 가능	- 일 년 중 첫 수확되는 곡물
	밀	10월	6월	- 보리와 생육조건이 비슷함	- 일 년 중 첫 수확되는 곡물
잡곡류	조	5월~7월	9월~10월	- 생육 기간이 짧고 건조에도 매우 강하므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람. - 주식으로 이용 가능	- 주식용 곡물 - 제사용 곡물
	피	4월~6월	9월~10월	- 산지나 척박한 땅에서도 잘 견디며, 냉수담 또는 저습지에도 재배가능 함 - 형태는 쌀과 비슷하며, 생육기간이 짧다. - 맛이 없으며(영양가는 쌀과 비슷함), 장기간 저장가능	- 구황작물
	기장	5월~6월	8월~9월	- 파종시기가 조와 비슷하지만 생육기간은 조금 짧음. - 메마른 땅에서도 잘 견디며 조보다 성숙이 빠름 - 기장은 수확량이 적고 주식으로 이용하기도 부적합	- 제사용 곡물
두류	콩	5월~6월	9월~10월	- 다른 작물과 윤작가능 - 단백질 공급원 - 척박한 땅에도 잘 적응하며, 윤작을 통해 지력회복에 도움	- 구황작물
	팥	6월~7월	10월	- 콩과 비슷한 조건이나 콩보다 따뜻하고 습한 기후가 적합 - 척박한 땅에도 잘 적응함	- 붉은색의 의미 - 제사용 곡물
채소류	들깨	4월~7월	9월	- 잎에서 특이한 냄새가 나며, 유효성분으로 재배함.	

- <표 7>에서 보듯이 곡물은 크게 가을에 파종하는 것과 봄에 파종하는 것으로 구분되며, 수확도 가을과 봄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곡물을 생산하는 시기도 가을과 봄의 2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 쌀은 일년생 초본식물로서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한다. 재배환경은 발작물에 비해 까다로운 토양 및 지형조건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경작지 조성도 어려운 편이다. 또한 고온성 작물로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재배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수량도 높아야 한다. 발작물에 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지만 단위면적당 수확량은 훨씬 많다.
- 쌀의 상징적인 의미는 크게 색(흰색)과 연결된 의미와 쌀생산의 어려움으로 인한 의미가 있다. 전자는 쌀의 색깔인 ‘흰색’과 연결된 것으로 흰색은 ‘신의 색’을 의미하며 쌀은 신에게 바치는 곡물로 인식될 수 있다. 이는 후자의 의미와도 연결되는 것으로

쌀생산의 어려움은 작물 중에서도 귀한 곡물로 인식되어, 특별한 경우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⁵⁾ 또한 이러한 연유로 위신제의 기능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보리와 밀은 맥류에 속하며 가을에 파종하여 늦봄에 수확한다. 동절기작물로서 비교적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잘 적응하여 재배가 용이하다. 파종과 수확 시기가 봄작물과 반대되기 때문에 봄작물과 번갈아 재배할 수 있으며, 봄작물의 수확물이 소진되는 시점에 수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기의 식량확보에 유리한 작물이다.
- 조, 피, 기장은 잡곡류에 속하며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하는 작물이다. 재배환경은 가뭄에 강하고 척박한 토양과 한랭한 기후에 잘 적응하는 어느 곳이나 재배가 가능하다. 특히, 피는 벼와 비슷한 형태로 발피와 논피가 있으며, 이중 논피는 벼와 같이 저습 지에서도 재배가 가능하다. 조는 주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작물이며, 기장은 조와 비슷하나 쉽게 소화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조와 기장의 문화적 의미로는 제사용 곡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⁶⁾ 잡곡류는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수도 작이 불가능한 산간지대에 초지를 태워 경작지를 만드는 화전경작에도 많이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인다.⁷⁾
- 콩과 팥은 두류에 속하며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한다. 재배환경은 잡곡과 같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잘 자란다. 특히 콩은 다른 작물과의 윤작을 통해 지력회복에도 많은 도움을 준다. 팥은 색깔이 붉은 색으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⁸⁾ 제의용이나 제사용 곡물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들깨는 채소류로서 식량확보를 위한 재배보다는 들깨에서 나오는 냄새나 기름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5) 현대의 조사사례이지만 ‘쌀밥의 문화적 의미’에 대한 연구를 보면 쌀밥을 차리는 상활별 우선순위에서 ‘제사’때가 가장 먼저였다. 이는 쌀이 가장 중요한 곡물임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즉, 쌀이 조상을 즐겁게 하는 음식으로 조상과 소통할 수 있는 곡물로 인식한 것이다. 또한 일상 의례에서는 수명장수를 비는 곡물로, 일상에서는 후손을 위한 나눔의 음식으로 사용되었다(김진혁 2009:85-89).

6) 중국에서 기장[黍]은 은(殷)을 건국한 탕왕(湯王)이 기장과 조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을 시작으로 제의(祭儀)에 반드시 사용하였고,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음식이며, 예주(醴酒)의 재료로 오곡의 풍요를 기원하는 제례에 쓰이는 대표적 곡물이었다(윤성재 2009:29).

7) 후대의 기록이지만 고려 공민왕때 정추라는 인물이 충주목(忠州牧)에 속한 청풍현(淸風縣)을 지나며 이 지역이 화전(火田)하여 조를 많이 재배하였다고 한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윤성재 2009:27).

8) 붉은 색의 의미에 대해서는 ①현생과 내세를 연결하여 죽은 사람이 영생하도록 하는 것, ②악귀나 악령을 쫓아내기 위한 수단, ③붉은 색은 피를 상징함으로 시신이 회색빛으로 변하는 것을 막아 영원한 생명력을 지니게 하는 것, ④붉은 색은 그 자체의 의미가 죽음을 상징한다(이용조 1975: 20).

2. 경작유구의 특징

- 경작유구는 곡물을 생산하는 유구로 대표적인 것이 논유구와 밭유구이다. 남강유역에서 경작유구가 확인된 유적은 총 19개이지만 대부분이 서로 연결되거나 같은 지형대에 속해 있어 하나의 유적으로 파악되는 것이 많다. 따라서 이들 유적을 정리해 보면 크게 6개 유적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유적은 진주 대평리유적(어은지구·옥방지구), 진주 평거동유적(3·4지구), 진주 초장동(초전동)유적으로 대규모 복합취락들이다. 나머지는 산청 단성면 묵곡리유적, 진주 이곡리유적, 진주 가호동유적 등으로 소규모의 경작유구가 확인되었다.
- 이들 경작유적 중에서 가장 많은 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진주 대평리유적과 진주 평거동유적이다. 특히 진주 대평리유적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청동기시대 밭유구가 확인되어 조사가 이루어진 곳으로 의미가 깊다. 진주 평거동유적은 충적지 전체가 조사된 유적으로 충적지의 세부지형과 취락구조와의 관계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밭유구뿐만 아니라 논유구까지 조사되어 취락구조의 전형을 보여주는 유적이라 하겠다.
- 이들 유적을 논과 밭으로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 <표 9>와 <표 10>이다.

표 9. 남강유역 논유구 현황

유적명			내용
3-1 지구	A 지구	1층 가부분	· 논면수: 계단식+소구획논 91면 · 전체 논면적: 2,177㎡ / · 평균면적: 22㎡(2~75㎡) · 구조: 논둑(잔존), 논면단차(2~10cm), 수로, 수구 · 출토유구: 집석, 구, 토기군, 소형석관묘
		1층 나부분	· 논면수: 소구획논 잔존(91면) → 추정(105면) · 전체 논면적: 2,025㎡/ · 평균면적: 12㎡(5~27㎡) · 구조: 논둑(폭 20~30cm, 높이 3~7cm 내외), 수구 · 출토유구: 수혈, 구
		2층	· 논면수: 계단식+소구획논 잔존(90면) → 추정(92면) · 전체 논면적: 1,210㎡ / · 평균면적: 11㎡(3~27㎡) · 구조: 논둑(잔존), 논면단차(2~10cm) · 출토유구: 구, 집석
4-1 지구	1층		· 논면수: 소구획논 95면 · 전체 논면적: 3,217.8㎡ / · 평균면적: 27.1㎡(72 의 평균) · 구조: 논둑, 논면단차(2~10cm)
	2층		· 논면수: 소구획논 14면 · 전체 논면적: 483.7㎡ / · 평균면적: 28.9㎡(13면의 평균) · 구조: 논둑, 논면단차(거의 평단면)
진주 초장동 (동서문물)			· 有
진주 이곡리			· 有

표 9. 남강유역 발유구 현황

유적명				내용
산청 단성 목곡리				· 전체규모: 2,600㎡
진주 가호동				· 전체규모: 800㎡
진주 대평리	어은1			· 전체규모: 13,200㎡
	어은2			· 有
	옥방1			· 전체규모: 150㎡
	옥방2·3			· 전체규모: 13,300㎡
	옥방4			· 전체규모: 1,100㎡
	옥방5			· 전체규모: 500㎡
	옥방6			· 전체규모: 3,700㎡
	옥방8			· 전체규모: 5,300㎡
	옥방9			· 전체규모: 400㎡
진주 평거동	3-1	B지구	1층	· 발의 수: 8면(평균면적 3,518㎡) · 전체규모: 28,140㎡ / · 이랑길이: 10~110m · 두둑간격: 80~90cm, 고랑폭: 36~45cm, 고랑깊이: 7~15cm
			2층	· 발의 수: 9면(평균면적 1,066㎡) · 전체규모: 9,590㎡ / · 이랑길이: 17~128m · 두둑간격: 70~120cm, 고랑폭: 35~60cm, 고랑깊이: 8~18cm
	3-2-1	Ⅲ-1층		· 발의 수: 3면(평균면적 967㎡) · 전체규모: 2,900㎡ / · 이랑길이: 20~150m · 두둑간격: 10~47cm, 고랑폭: 40~55cm, 고랑깊이: 5~15cm
	3-2-2	A지구	발 12층	· 발의 수: 3면(평균면적 1,433㎡) · 전체규모: 4,300㎡ / · 이랑길이: 68~85m · 두둑간격: 50~79cm, 고랑폭: 45~60cm, 고랑깊이: 4~9cm
	4-1	1층		· 발의 수: 19면(평균면적 1,730㎡) · 전체규모: 24,222㎡ / · 이랑길이: 10~123m · 두둑간격: 84~146cm, 고랑폭: 26~60cm, 고랑깊이: 3~9.6cm
	4-2	가지구		· 발의 수: 11면(평균면적 2,783.5㎡) · 전체규모: 1,6713.4㎡ / · 이랑길이: 12~34m · 두둑간격: 48~102cm, 고랑폭: 42~76cm, 고랑깊이: 2~6cm
	4-3	1층		· 발의 수: 2면(평균면적 1299.6㎡) · 전체규모: 6,498.1㎡ / · 이랑길이: 35m · 두둑간격: 110~135cm, 고랑폭: 40~60cm, 고랑깊이: 5~8cm

- 논유구는 주로 ‘벼’를 재배하는 경작지로 배수가 불량하고 주변에서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 조성된다. 남강유역에서도 강변충적지의 자연제방과 구룡말단부 사이에 위치한 배후습지 지역에 주로 입지한다. 논의 기본구조는 논둑으로 논면을 구획하며,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기 위해 수구(물꼬)를 설치한다. 물은 하천이나 관개시설에서 수로를 통해 수구로 전달되어 각 논면에 전해진다. 남강유역에서 논유구의 구조가 잘

확인된 곳은 진주 평거동유적으로 이를 통해 대략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논 의 기본 형태는 소구획 논이지만 지형에 따라 소규모의 계단식 논도 함께 조성하였다. 평면형태는 장방형, 세장방형, 호상, 부정형 등이다. 논 의 전체면적은 가장 넓게 조성되었을 때가 3지구는 $2,177\text{m}^2$, 4지구는 $3,217.8\text{m}^2$ 정도이며, 논 한 면의 평균 면적은 $11\text{m}^2 \sim 28.9\text{m}^2$ 정도이다. 논둑폭은 $20 \sim 30\text{cm}$ 정도이며, 논 한 면의 규모는 길이 $3 \sim 5\text{m}$, 너비 $2 \sim 2.5\text{m}$ 정도이다. 논 주변에서는 토기군, 구, 소형석관묘 등이 확인되어 농경의례의 양상을 엿볼 수 있다.⁹⁾ 전체적으로 보면 논은 특정 지형에만 조성되며, 관계시설의 설치, 논구조의 복잡성, 경작지의 규격화 등으로 보아 논 조성에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축조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외와 더불어 벼 재배에도 상당한 경작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경의례의 확인은 경작기술과 더불어 문화적 측면에서도 매우 성숙되었음을 알 수 있다.

- 발유구는 토양 및 지형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다양한 지형에 입지한다. 남강유역에서는 충적지에서 확인되었다.¹⁰⁾ 발유구는 주거공간인 자연제방의 상면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주로 분포한다.¹¹⁾ 세부지형으로 보면 주로 미고지의 평탄면, 자연제방의 전·후사면, 미고지와 미고지 사이의 경사면 등이다. 발 구조는 두둑과 고랑으로 구성된 이랑밭이며, 밭과 밭의 경계는 구를 파서 경계구를 만들었다. 일부 경계구 내부에는 강돌을 일정 간격으로 박아 놓은 것도 있다. 이랑의 길이는 개별 밭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10\text{m} \sim 150\text{m}$ 까지 다양하다. 두둑간격과 두둑폭도 다양하게 나타나며, 고랑깊이는 $5 \sim 15\text{cm}$ 정도가 많다. 이랑의 방향은 경사면과 평탄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경사면의 경우는 대부분 등고선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이랑이 설치된다. 평탄면에서는 다양한 방향으로 이랑이 설치되지만, 대부분 강과 직교하는 북서남동 방향이 많다. 등고선과 직교하는 이랑의 설치의 청동기시대 밭경작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이라 볼 수 있다. 밭의 내부에서는 수혈도 일부 확인되며, 밭과 중복되어 지석묘, 함정, 수혈 등이 분포한다. 밭의 면적은 밭이 입지한 지형을 감안하여 대략적으로만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진주 대평리유적은 충적지 전체에서 강에 인접한 자연제방대를 중심으로 일부만 조사된 것으로 대평리 충적지 전체의 경작지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조사된 지역을 중심으로

9) 논과 관련된 농경의례 유구는 진주 평거3-1지구 청동기시대 논에서 확인되었다. 이중, 소형석관묘는 진주 평거3-1지구, 진주 대평리 어은1지구, 옥방2·3지구의 발유구 가장자리에서도 확인되어 농경의례의 유사성을 보인다.

10) 발유구는 지상에 설치되며 별다른 구조물 없이 흙으로만 조성되기 때문에 후대의 유실과 교란이 많다. 따라서 구릉지에서도 밭이 활발히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 흔적을 찾기는 어렵다.

11) 옥방 1지구(진박) 40호 밭이나 66호 밭처럼 일부는 텃밭의 형태로 자연제방 상면에 입지하는 경우도 있다.

로 지형을 감안하여 미조사지역과 유실된 지역까지 포함하여 전체 발면적을 추정하면 대략 40,000㎡ 정도의 규모로 생각된다. 진주 평거동유적은 충적지형 전체가 조사되어 발의 분포범위가 비교적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곳으로 3지구의 발 전체면적은 대략 45,000㎡이며, 4지구의 발 전체면적은 대략 47,500㎡ 정도이다. 이들 대규모 복합유적의 발유구들은 주거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경작지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지력감소로 인한 휴경을 감안하더라도 대단위의 경작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즉, 곡물의 대량생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산청 단성 묵곡리유적 발면적은 약 2,600㎡ 정도이고 진주 가호동유적 발 면적은 800㎡ 정도이다. 이중 산청 단성 묵곡리 발유구는 일부만 조사된 것으로 정확한 전체면적으로 알 수 없다. 하지만 입지하는 충적지의 면적이 넓은 것으로 보아 대규모의 경작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경작지에서 확인되는 개별 발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입지지형에 따라 차이 있지만, 작물의 종류나 경작지의 소유형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곡물의 생산과 소비

1) 곡물 생산과 저장

(1) 곡물 생산

- 남강유역의 대규모 취락은 충적대지를 중심으로 발달하는데, 곡물을 생산하는 경작지도 이와 연동하여 발달한다. 따라서 남강유역의 충적지 양상을 파악하는 것은 곡물 생산지를 파악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 남강의 상류는 주변에 산지가 높고 계곡이 깊어 하천의 곡류가 심하지 않아, 충적지의 발달은 미미하다. 대규모 충적지는 중·하류지역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점은 산청 강루리지역으로 동쪽으로 흐르던 하천이 백마산과 적벽산에 막혀 남쪽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크게 곡류하여 대규모 충적지를 만든다. 이렇게 시작된 하천의 곡류는 하류로 갈수록 심해지면서 대규모의 충적지들을 만들게 된다. 따라서 남강유역의 대규모 경작지들은 대규모 충적지가 위치한 중·하류지역에 입지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대규모 경작지가 확인된 진주 대평리유적, 진주 평거동유적, 진주 초장동유적 등도 모두 중·하류지역의 충적지에 위치한다. 따라서 남강유역 곡물생산의 거점지역은 중·하류지역 충적지에 입지한 대규모 복합취락으로 생각된다.
- 충적지에 입지한 논경작지의 양상은 충적지 전체가 조사된 진주 평거동유적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논경작지는 자연제방과 배후구릉 말단부 사이의 배후습지에 입지한다. 이 지역은 구하도가 있던 곳이 메워진 곳으로 주변지형과 구분되어 논경작지

의 범위가 지형적으로 정해진다. 따라서 인위적인 논 경작지의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당시의 경작도구가 돌과 나무로 만든 도구임을 감안하면 형질변경을 통한 논경작지의 인위적 확대는 많은 노동력과 기술력이 투입되는 대규모의 토목작업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논경작 조건에 맞는 지형과 토질을 찾아내고 최소한의 노동력으로 경작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을 것이다. 평거동유적의 논경작지에서 보면 한 지역에서 논이 폐기된 이후에도 다시 경작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대로 벼 재배의 특성상 특정조건이 갖춰진 지역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작지의 조성방법으로 경작지역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작지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논조성에서 가장 주요한 것은 논면의 수평을 맞추는 것으로 물을 가두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 많은 노동력과 기술이 동원된다. 진주 평거동유적에서는 경작지역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경작지의 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 평탄면에는 소구획논을 조성하고 가장자리의 완만한 경사면에는 계단식논을 조성하였다. 이는 인위적인 지형변경을 최소화하면서 경작지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생각된다.

- 논유구는 논면의 형태, 규모, 관련시설 등을 고려하면 경작지 조성에 일정한 축조플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경작방법도 상당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이 전시기와 다른 매우 발달된 농경기술이 적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경작지 주변에서 확인된 농경의례 관련 유구들은 경작지를 단순히 곡물만을 생산하는 일반적인 유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신성시하는 차별화된 유구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는 논경작지의 회소성에서도 나타난다.
- 현재 논경작지가 확인된 유적은 소수이지만 진주 평거동유적처럼 충적지 전체를 조사하면 논경작지는 더 많이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강유역의 최상위 대규모 취락인 진주 대평리유적은 강과 인접한 일부지역만 조사되어 밭경작지만 확인된 상태로 충적지 전체를 조사한다면 진주 평거동유적 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논경작지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중·하류지역의 충적지를 감안하면, 밭경작지와 더불어 대규모의 논경작지가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쌀생산도 활발히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다.
- 밭경작지는 논경작지와 같이 모두 충적지에서 확인되었지만, 구릉에 입지하는 취락에서도 소규모 텃밭이나 화전을 통해 경작되었을 가능성은 높다. 밭경작의 가장 큰 특징은 앞서 살펴본 대로 경작지의 확대 및 대규모화이다. 충적지에 입지한 밭은 주거공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을 경작지로 조성하여, 경작지의 면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다.

이러한 밭경작지의 확대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밭작물의 특수성으로 토양조건이 까다롭지 않아 경작지를 비교적 쉽게 조성할 수 있고, 재배기술도 비교적 단순하여 쉽게 경작할 수 있다. 둘째, 한 지역에 다양한 작물을 동시에 경작하거나 윤작이 가능하여 식량확보에 유리하다. 셋째, 충적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취락이 형성되어 넓은 경작지를 확보하기 쉽고, 인구증가와 더불어 식량의 수요도 증가하여 식량생산지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었다.

- 밭작물은 맥류(보리, 밀), 잡곡류(조, 피, 기장), 두류(콩, 팥) 등이 확인되어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이 식량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척박한 조건에서도 비교적 잘 자라는 작물들이다. 파종과 수확 시기는 대부분 벼와 같이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하는 봄작물들이며, 보리와 밀이 가을작물로서 가을에 파종하여 봄에 수확한다. 보리와 밀은 다른 작물의 수확물이 소진되는 시점에 수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에서 매우 중요한 작물이다. 출토곡물이 다양한 것은 재배하는 경작지가 다양하거나 같은 경작지에서 여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곡물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콩의 경우 다른 작물과 윤작을 하면 지력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다른 작물들은 그렇지 못하다. 따라서 대규모 경작지에서는 여러 밭으로 구획하여 각기 다른 작물을 심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사사례에서 밭구획이 확인되는 것으로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의 밭경작 기술로서 대규모 경작지를 동시에 경작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작물재배 후 지력을 회복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동시에 재배를 하게 되면 일정기간 재배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규모 밭의 동시 경작보다는 일정 지역에 한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번갈아 경작하는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경작지의 급속한 확대도 이러한 영향으로 발생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밭작물은 대부분 식량공급의 역할과 함께 일부 작물은 문화적 의미를 가진다. 조와 기장은 제사에 사용되는 곡물이나 팥은 의례행위에 주로 사용된다. 이러한 문화적 의미도 밭작물의 재배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작물의 다양성은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력회복, 수요에 따른 생산물의 다양화 등이 원인으로 생각된다.
- 밭작물의 곡물생산 거점도 논경작지와 같은 남강의 중·하류지역 충적지이며, 경작지의 면적은 주거지의 규모에 관계없이 생활공간을 제외한 충적지의 전지역을 경작지로 이용하면서 경작활동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다. 따라서 논경작지와 같이 다른 충적지에서도 밭경작지가 분포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 밭경작지의 확대와 대규모화는 곡물의 생산기반이 늘어나는 것으로 곡물의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재배작물의 종류도 다양해져 곡물의 종류도 늘어났다. 이는 식량확보의 안정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생산증가에 따른 잉여생산물의 발생으로 집단 내부의 구조변화나 취락간의 교역변화도 나타난다.

(2) 곡물 저장

- 쌀을 비롯한 식량작물들은 대부분 1년에 한번씩 일시에 생산되지만 소비는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곡물의 저장은 곡물의 생산만큼 중요한 일이라 볼 수 있다. 곡물저장은 먼저 수확된 곡물을 저장하기 유리한 상태로 처리하는 것과 처리된 곡물을 저장하는 장소에 관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크게 2가지 방법이 가능한데, 첫째는 수확물 그대로 저장하는 방법, 둘째는 탈곡한 상태의 낱알인 조곡(組穀)상태로 저장하는 방법이다. 청동기시대의 수확도구는 석도와 석점이 있지만 이들 도구로 줄기를 절단하여 곡물을 수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뿌리째 뽑아서 수확할 경우에도 물리적인 힘이 많이 필요하고 곡물에도 손상이 많아지게 되어 수확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수확방법은 곡물이 열려있는 부분을 따는 형태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수확물의 저장방법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으로는 고상건물지(굴립주)를 이용한 창고시설의 설치, 저장혈, 주거지 내부에 대형옹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다. 고상건물지는 취락내의 배치나 규모로 볼 때 대량의 수확물을 저장하는 대형저장시설로 보인다. 저장혈은 군집을 이루는 것은 고상건물지와 같이 대량의 수확물을 저장하는 시설로 생각되지만 독립적으로 배치된 것은 개별가구나 소규모 가구의 저장시설로 보인다. 대형옹은 가구의 독립적인 저장시설로 보인다. 이러한 저장시설들의 특징으로 볼 때 고상건물지에는 수확물을 그대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저장혈이나 대형옹에는 조곡상태로 저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고상건물지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수확물의 장기저장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보관방법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고상건물지는 구조적으로 넓은 공간에 통풍이 잘되고 습기에 강하기 때문에 수확물을 그대로 저장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된다.¹²⁾ 저장혈은 개별 저장혈의 공간이 넓지 않아 수확물을 그대로 저장할 경우 한 곳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없는 점과 습기에 취약한 점이 있어 조곡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¹³⁾ 대형옹은 기능상 단기간 보관용으로 생각되어 조곡상태나 현미상태로 저장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저장시설이 확인된 취락은 10개 유적으로 대규모 복합유적인과 중형 복합취락에서 확

12) 벼의 경우 벧단 그대로 보관할 경우 3년 이상 장기간 보관에 유리하다(이홍중, 1997:13-14).

13) 곡물 저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곡물을 건조시켜 저장하는 것과 저장공간의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바람과 열을 이용하여 건조시키거나 습기를 제거한다.

인되며, 남강의 전체 취락 수로 보면 적은 편이다. 저장시설은 대부분 경작지가 포함된 취락에서 확인되지만 산청 묵곡리유적처럼 일부는 전문적 기능을 가진 취락에서도 확인된다. 아직 조사사례가 적어 전체적인 양상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경작지의 규모로 볼 때 다양한 저장시설이 설치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곡물 유통과 소비

- 남강유역의 취락을 취락유형에 따라 정리하고, 이를 곡물의 생산과 소비적 관점으로 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남강유역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의 특징

취락 유형		특 징	곡물의 생산과 소비 관점
중심 취락	대규모 복합취락	- 구성요소 : 생활유구+저장유구+의례유구+무덤유구+경작유구 - 넓은 충적지에 입지하며, 배후에 낮은 구릉이 인접해 있음. - 공간구분 : 충적지의 세부지형(자연제방, 배후습지)에 따라 1차적인 공간구분(생활공간과 곡물 생산공간)이 이루어지며, 생활공간내에서 다시 2차적인 공간구분(무덤공간, 저장공간, 집단 의례공간, 광장 등)이 이루어져 취락구성이 완성됨. 공간구분이 뚜렷함. - 유구의 수가 많고 다양함. - 생활활동(곡물생산, 수공업품(토기, 석기, 옥)생산)의 활발함 - 광장배치. 집단적 의례활동 - 대규모 분묘조성 - 환호설치. 취락내에서도 중심지역 설치	대규모 생산취락
	경작지중심 취락	- 충적지 입지(경작에 유리한 지역) - 경작지가 중심이 되며, 주거지는 경작지의 주변에 소수만 배치됨 - 농경관련 의례. 주로 밭경작 이루어짐	생산전문 취락
주변 취락	무덤중심 취락	- 충적지 및 구릉사면 입지 - 장송의례, 분묘제사와 관련된 활동 - 무덤군이 중심이 되며 주거지는 주변에 소수만 배치됨. - 무덤의 수가 주거지의 수보다 많음.	소비전문 취락
	의례중심 취락	- 충적지 입지(지류의 소하천변) - 주거지는 의례유구와 조금 떨어진 곳에 소수만 배치됨. - 의례활동이 중심.	소비전문 취락
	소규모 취락	- 구릉사면이나 충적지에 입지 - 소수의 주거지가 중심이 되며, 다른 생활유구의 수는 매우 적음.	소비취락
	소규모복합 취락	- 충적지 입지 - 소수의 주거지, 무덤, 생활유구가 함께 배치됨	소비취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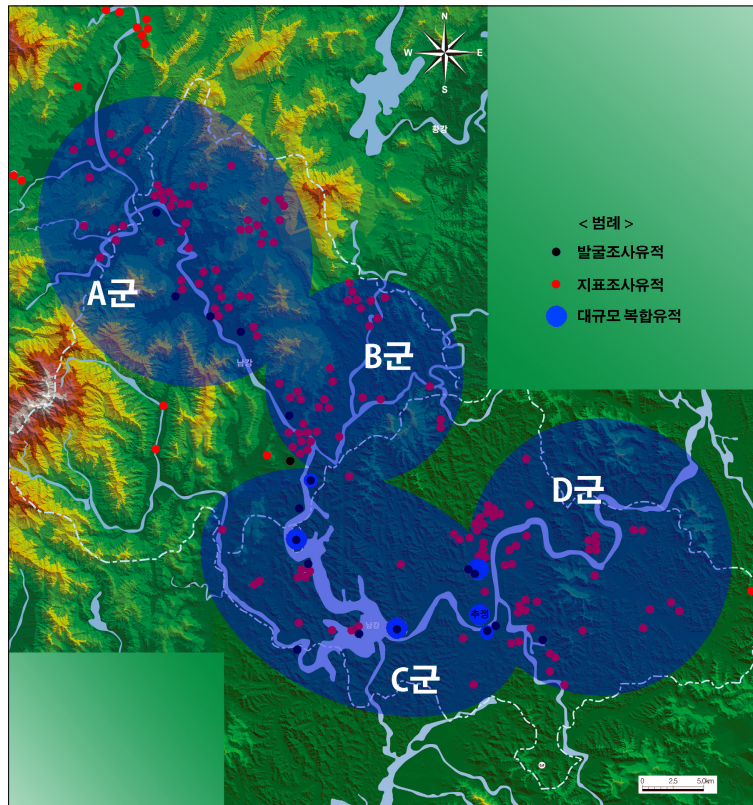
- 남강유역의 취락은 크게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분되며, 취락 상호간에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취락간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수공업품의 생산과 소비를 통해 설명된다. 수공업품은 청동기시대 엘리트집단이 그들 자신의 권력을 창출하

고 권위를 획득하기 위해 어떤 초보적인 네트워크 전략을 구사했을 것이며, 그 전략으로써 수공업품 중 위세품의 생산과 분배 및 농경잉여물의 통제를 들고 있다(고민정 · Bale 2008:88). 이러한 수공업품에는 반전업적인 전문 공인집단에 의해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적색마연토기, 마제석검, 옥 장신구 등이 해당되며, 이들의 생산과 교환, 분배를 통해 취락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으로 보았다(Ko Min jung · Martin T. Bale 2007, 2008; 庄田慎矢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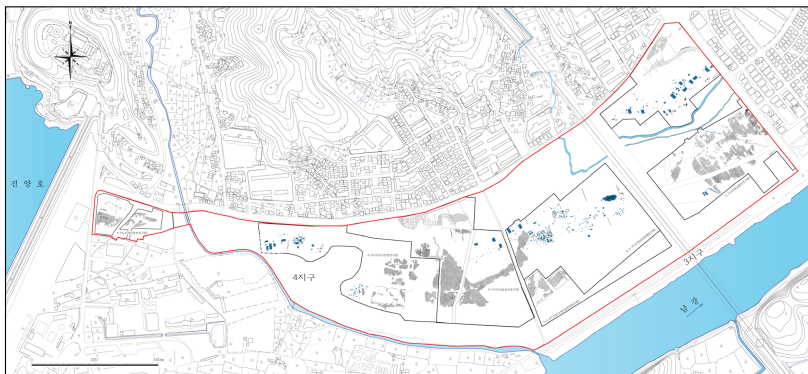
- 곡물의 생산과 소비 네트워크도 수공업품과 비슷하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곡물의 대량생산으로 인한 잉여생산물이 수공업품과 비슷한 형태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표 11>에서 보듯이 중심취락은 취락의 모든 구성요소를 갖추면서 남강유역의 엘리트 집단으로 성장하며, 이는 대규모 경작지를 통한 곡물의 대량생산이 중심취락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논경작을 통한 쌀의 생산은 주변취락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라 하겠다. 주변취락에는 의례중심 취락 또는 무덤중심 취락 같이 특수한 기능을 하는 취락도 있지만 대부분은 소규모의 복합취락으로서 곡물을 생산하기 보다는 소비하는 취락들이다. 물론 각 취락에서는 개별적인 생산활동은 이루어지겠지만, 잉여생산물을 생산하여 상호 교류할 정도의 생산량은 못되는 것으로 보인다.
- <도면 3>은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의 분포도이다.¹⁴⁾ 전체적인 분포를 보면 크게 4개의 권역으로 나눌 수 있다. A군은 산청을 중심으로 산청 하촌리유적에서 산청 묵곡리유적까지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B군은 산청 강루리와 지류인 신등천을 중심으로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 C군은 진주를 중심으로 대규모 충적지에 입지한 유적인 진주 대평리유적에서 진주 초장동유적까지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며, D군은 진주 집현면과 이곡리를 중심으로 하나의 군집을 이룬다. A~D군집 중에서 대규모 복합취락은 C군집에 주로 분포하며, 나머지 군집은 중·소규모의 소규모 복합취락이 주를 이룬다.
- A군집, B군집, C군집은 주로 하천변에 인접한 곡부평지와 구릉 사면에 주로 입지하는데, A군집은 본류에 주로 인접해 있고, B군집과 C군집은 본류와 지류에 인접해 있다. 지리적으로 보면 모두가 하천과 연결된 교통로상에 위치하며, 유적간의 거리도 가까운 편이다. C군집은 다른 지역에 비해 산지가 발달되지 않았으며, 유적은 주로 남강 본류의 대규모 충적지에 입지한다. C군집에서 현재의 진주시내가 위치한 자리도 전체적인 지형양상으로 볼 때 진주 평거동유적 같이 대규모의 복합취락유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C군집은 하천이 크게 곡류하면서 만들어진 대규모의 충

14)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청동기시대 유적까지 모두 표시하였다. 지표조사에서 확인된 유적들은 대부분 지석묘와 입석 등이지만 취락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인 분포상은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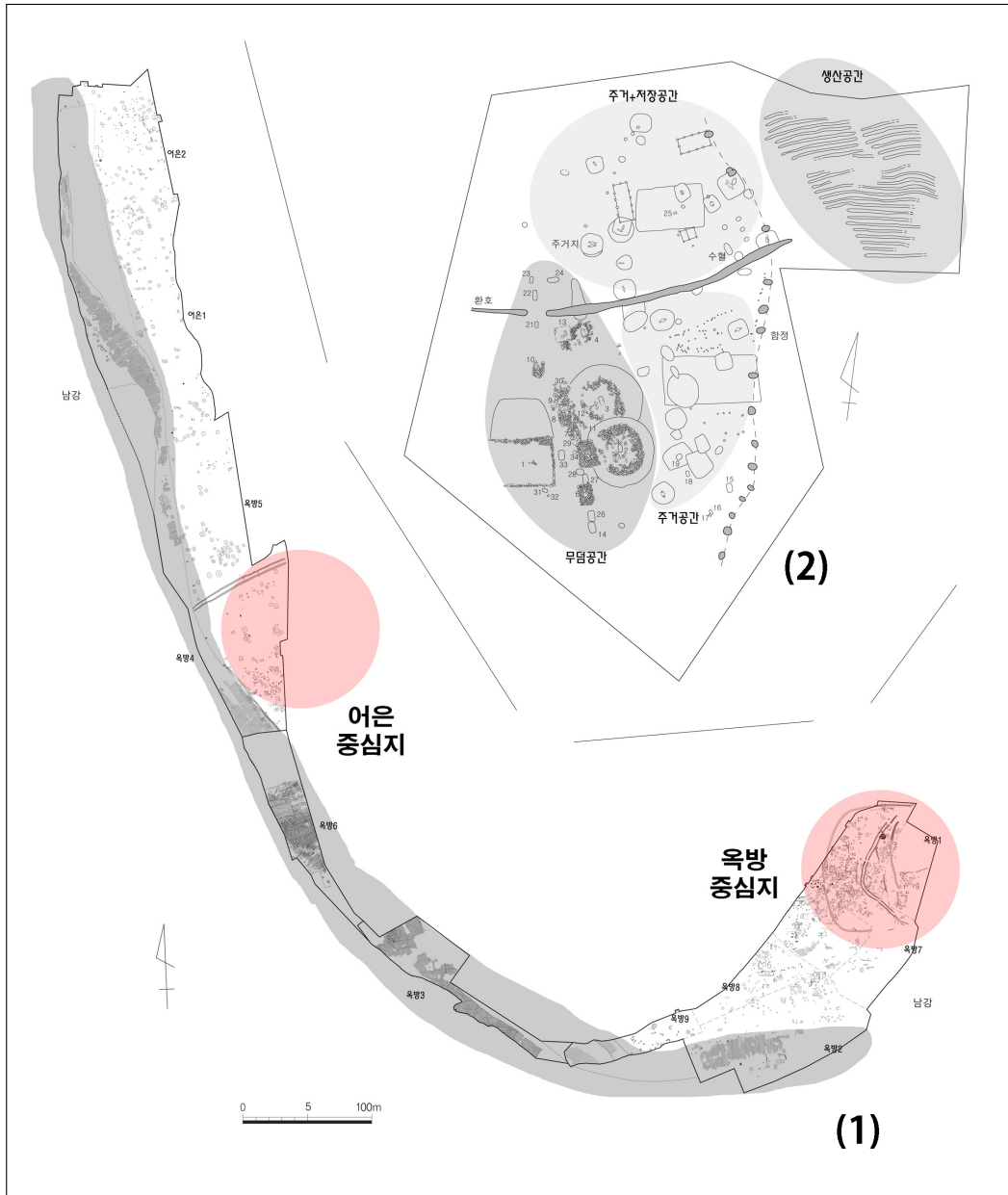
적지에는 모두 대규모 복합취락유적이 형성되어 대규모의 곡물 생산지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각 군집들은 남강의 본류와 지류를 통해 지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거리 상으로도 가깝다. 따라서 동시기의 유적일 경우는 상호 취락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들로서 상호교류도 활발했을 것으로 보인다.



도면 3.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유적 분포 및 지역군



도면 4. 진주 평거동유적 유구배치도(3지구, 4지구)



도면 5. (1) 진주 대평리유적 유구배치도, (2) 진주 가호동유적 유구배치도

- 전체적인 군집양상과 대규모 복합취락(대규모 경작지)들의 위치를 볼 때 곡물의 생산은 C군집에서 주로 이루어져 A군집, B군집, D군집으로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유통경로는 주로 하천 경로를 이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 취락간의 네트워크는 하천을 매개체로 한 교통망의 구축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수공업 생산품의 유통도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

다. 또한 이러한 네트워크망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사회적 정황으로 볼 때 취락간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 내지는 교역대상 관계라 여겨진다. 따라서 취락간의 사회적 분화양상은 다르지만 다양한 생산품을 통한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즉, 중심취락 내지 중심취락과 주변취락간의 교류나 주변취락간의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교류양상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 중 식량생산을 담당하는 취락과 위세품을 생산하는 취락은 다른 취락에 비해 높은 기술력과 부를 바탕으로 우위적 지위를 가지고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잉여생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고고학적 증거는 수공업 생산품에 비해 그 흔적을 찾기가 어렵지만, 대규모 경작지나 저장시설, 곡물유체 분석 등을 통해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부족한 편이나 농경관련 유구의 조사가 증가하고, 곡물유체 분석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를 통한 잉여생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IV. 맺음말

이 글은 남강유역의 취락을 대상으로 청동기시대 곡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먼저 남강유역에 분포하는 취락현황을 취락의 구성요소에 따라 정리하여, 취락구조를 검토하였다. 취락은 크게 중심취락과 주변취락으로 구분되며, 중심취락은 대규모 복합취락의 형태로, 주변취락은 소규모 복합취락이나 전문기능 취락(의례중심 취락, 무덤중심 취락 등)의 형태로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취락간의 위계화나 네트워크 관계를 살펴보았다. 경작유구 검토를 통해서 는 논유구와 밭유구의 특징을 살펴보고 곡물생산 유구로서의 기능과 남강유역에서 경작유적의 추가 분포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곡물의 생산은 대규모 취락이 축적지를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경작지도 같이 확대되었고 이와 더불어 경작기술도 발전하였다. 대규모 경작지의 조성은 곡물의 대량생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잉여생산물을 발생시킨다. 이는 중심취락과 주변취락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시켜 소비하게 된다. 이러한 시스템은 남강유역의 하천을 따라 형성된 교통로를 통해 이루어진다. 생산지와 소비지의 관계는 발굴조사된 취락과 지표조사를 통해 확인된 유적을 함께 검토하여 남강유역의 전체적인 군집양상을 설정하여 곡물의 생산과 유통관계를 설명하였다. 남강유역은 크게 4개의 군집이 설정되며, 이중 남강의 중·하류에 위치한 C군집에 대형취락(대규모 복합취락)이 주로 분포한다. 따라서 이 지역을 곡물 생산지로 파악하고 나머지 지역으로 유통하는 것으로 보았다. 소비

되는 취락은 대부분 주변취락들이다. 전체적인 자료는 부족하지만 남강유역은 취락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곡물도 일정한 시스템(생산-유통-소비)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남강유역은 청동기시대의 많은 취락이 분포할 뿐만 아니라 경작유적이 많이 조사되어 청동기시대 곡물의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일 단면을 파악하기에는 좋은 연구대상지역이다.

하지만 처음의 생각했던 것만큼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 경작유적은 한정된 지역에서만 조사되었으며, 곡물의 생산과 소비를 검토할 기본 자료인 곡물의 시료분석도 많이 부족하였다. 따라서 한정된 경작유구와 곡물자료를 가지고 남강유역 전체를 검토하다 보니 많은 오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점에 대해서는 모두 필자의 잘못이며, 차후 보완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고민정, 2003, 『南江流域 無文土器文化의 變遷』,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_____, 2005, 「무문토기시대 황침선문 적색마연토기 고찰」 『咸安 鳳城里遺蹟』,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 _____, 2010,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구조와 성격」 『嶺南考古學』 54, 영남고고학회.
- Ko Min jung · Martin T. Bale, 2007, 「Specialized Craft Production in the Middle Mumun Pottery Period of South-Central Korea」 『아시아의 지역문화와 문화교류』, 전남대학교 출판부.
- 고민정 · Martin T. Bale, 2008, 「청동기시대 후기 수공업 생산과 사회 분화」 『韓國青銅器學報』 2.
- 김진혁, 2009, 「쌀밥의 문화적 의미 변화-대변 무수동(無愁洞) 사례를 중심으로-」 『농업사연구』 제8권 1호, 한국농업사학회.
- 배덕환, 2009, 『嶺南 南部地域 青銅器時代 住居址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博士學位論文.
- 안승모, 2013a, 「식물유체로 본 시대별 작물조성의 변천」 『농업의 고고학』, (주)사회평론.
- 안승모, 2013b, 「부록1」 『농업의 고고학』, (주)사회평론.
- 윤성재, 2009, 『고려시대 식품의 생산과 소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호필, 2005, 「沖積地形에 입지한 유적 조사법 및 분석방법」 『발굴사례 · 연구논문집』 제2집, 한국문화재조사연구전문기관협회.
- _____, 2010, 「농경으로 본 청동기시대의 사회」 『경남연구』 제3집, 경남발전연구원 역사문화센터.
- _____, 2013, 「경작유구를 통해 경지이용방식의 변천 연구」 『농업의 고고학』 (주)사회평론
- 이상길, 2000a, 「南江流域의 農耕-大坪地域 밭을 中心으로-」 『南江 南江遺蹟과 古代日本-고대한일 문화교류의 제양상』, 경상남도 · 인제대학교가야문화연구소
- _____, 2000b, 「青銅器時代 儀禮에 관한 考古學的 研究」, 대구효성기독교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 이상길 · 이경아, 1998, 「大坪 漁隱1地區 遺蹟과 植物遺體」 『南江댐 水沒地區의 發掘成果』, 제7회

영남고고학대회 발표요지.

이용조, 1975, 「양평 양덕리 고인돌 발굴보고」 『韓國史研究』 11.

이홍중, 1997, 「韓國 古代의 生業과 食生活」 『한국고대사연구』 12.

이형원, 2009, 「韓國 靑銅器時代의 聚落構造와 社會組織」, 忠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최셋별, 2013, 『남강유역 청동기시대 후기 취락 연구』, 釜山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論文.

庄田愼矢, 2007, 「南韓 靑銅器時代의 生産活動과 社會」, 忠南大學校大學院 考古學科 考古學專攻 博士學位論文.

- 발굴조사보고서는 생략함.